

재난 서사에 내재된 공포 정치와 젠더 레짐

- 정유정의 『28』, 최진영의 『해가 지는 곳으로』 중심으로*

한아름(전북대)

〈목 차〉

- | | |
|---------------------|-----------------------------|
| 1. 서론 | 3. 규율 권력의 해체로 매개되는 |
| 2. 재난 속 일상화된 공포와 지배 | 감각적 몸/신체 |
| -북종의 권력구조 | 4. 결론: 현실 속 바이러스의 진단과 면역 장치 |

1. 서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이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하면서 한국도 국경을 제한적으로 이동하도록 권고하고 5인 이상 집합 금지 및 사회적 거리 두기 등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여러 정책을 시행하였다. 팬데믹 이후 사람들은 마스크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하였으며, 재택근무와 온라인 수업 등 사회 전반에 거대한 변화가 생겼다. 감염을 관리한다는 이유로 확진자의 이동 동선이 공개되고 접촉자들이 격리되는 통제가 이루어졌다. 사망자와 중증 환자 분포도가 숫자로 집계되면서 사람들은 더욱 감염병을 재난으로 인지하게 되었다.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1S1A5B5A17054831)

정부 기관을 비롯한 국제기구 주도로 의학적 치료 대상자를 선별하면서 공동체 내부에서 불안과 갈등이 심화¹⁾되었다. 코로나19 위기 인식이 완화되고 엔데믹(풍토병) 시대로 전환되었지만 여전히 언택트(Untact)²⁾가 일상이 된 환경의 변화를 느낄 수 있다. 코로나 이후 다양한 공동체에 속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팬데믹 상태에서 어떻게 현실에 적응하며 살아야 하는지 성찰할 수 있게 되었다.

인문학적 시선에서 감염병을 종합적으로 고찰한 정과리는 일반적인 질병은 ‘병이 났다’는 사실만으로 출발하지만, 감염병은 ‘병이 났다’는 사실에 ‘병이 옮겨졌다’는 사실을 보태야만 이해가 시작될 수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감염병은 집단적 수준에서 고려해야 하며, 더 나아가 그 집단을 다양하고 이질적인 존재들의 집합으로 이해해야 한다³⁾고 주장한다. 타인에게 감염될 수 있다는 위험성은 관계에 대한 사람들의 사고와 태도를 바꾸어 버렸다. 국가주의나 지역주의를 조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 내에서 타자를 꺼리면서 이질적인 존재를 거부한다. 팬데믹 이후에도 여성, 성소수자,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등 하위주체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행하는 구별 짓기가 우리의 일상이 되었다.

문학연구에서 재난 서사를 다룬 연구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논의가 확장⁴⁾되

-
- 1) 유럽 몇몇 국가에서는 연령에 따라 이동 제한을 다르게 적용하고 노령층의 치료를 거부하였다.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 등 전 세계에서 아시아인에 대해 인종 차별이 심각해졌으며 각 국가가 국경을 폐쇄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세대, 직업, 성별, 이념, 인종 등 다름을 이유로 이데올로기적 차별이 표면화되었다. 코로나 이후 타자화된 존재에 대한 논의는 권창규, 「감염병 위기와 타자화된 존재들」, 『현대문학의 연구』 72, 현대문학연구학회, 2020, 163-207면 참조.
 - 2) 사람과 사람이 직접 접촉하지 않음을 뜻하는 신조어. 영어권에서는 ‘년컨택트(noncontact), 노컨택트(no-contact), 제로 콘택트(zero contact)’ 등의 용어가 사용된다.
 - 3) 정과리·이일학 외, 『감염병과 인문학』, 도서출판 강, 2014, 14면. “전염은 관련 현상을 그것의 전체적 포괄성과 거시적 층위에서 연구할 것을 주문하는 반면, 감염은 미시적 층위에서 전달의 행위자(actor)들에게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구”한다고 규정하였다. 본 논의에서도 전염과 감염의 의미망을 동일한 현상의 양상으로 보고 거시적 차원에서는 전염 개념을, 행위자 분석의 미시적 차원에서는 감염 개념을 차용하고자 한다. 박길성·김우주 외 지음, 『전염의 상상력』, 나남, 2017, 37-38면 참조.

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공포’라는 감정과 ‘젠더’라는 성차를 살피는 주제와의 관련성을 전제로 자연재해 관련 연구는 배제하고 감염(전염)의 재난 상황을 다룬 선행 연구를 검토하였다. 먼저 재난 서사에서 ‘공동체’의 특성을 분석한 연구⁵⁾에서 유의미한 시각을 발견할 수 있었다. 김영삼은 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관성에서 재난 발생의 원인을 찾고 생존에 대한 일상적 감각을 분석하여 공동체의 의미를 규명하였다. 하지만 일상에 내재한 권력의 관성을 미시적으로 둔화되고 은폐된 서사 전략으로 해석해 공동체를 야만성이라는 퇴행의 양상으로 바라본 것은 관점에 차이가 있다.

고봉준은 감염병을 소재로 한 2000년대 재난소설을 ‘연대’의 문제를 중심으로 고찰하면서 “재난적 주체와 대안적 주체의 관계에 따라 연대의 가능성과 불가능

-
- 4) 김양선, 「팬데믹 이후 사회에 대한 (여성)문학의 응답: 젠더, 노동, 네트워크」, 『비교한국학』 29(1), 국제비교한국학회, 2021; 박인성, 「한·미·일 재난 서사의 마스터플롯 비교 연구」, 『대중서사연구』 26(2), 대중서사학회, 2020; 서희원, 「팬데믹 시대의 소설과 개인」, 『인문과학연구논총』 42(3), 명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21; 양종근, 「모빌리티, 디아스포라, 난민 문학 - 강영숙의 『리나』와 최진영의 『해가 지는 곳으로』를 중심으로」, 『탐라문화』 68,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2021; 이형영, 「최진영 해가 지는 곳으로 공간성 연구 - 한국형 아포칼립스로서의 특성을 중심으로」, 『문화와 융합』 44(10), 한국문화융합학회, 2022; 임지훈, 「팬데믹 이후 소설에서의 변화에 대한 예비적 고찰-코로나 이후 소설에서 나타나는 변화의 양상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 73, 한국언어문화학회, 2020; 장성규, 「과국과 종말의 상상력: 한국 재난 서사 콘텐츠를 중심으로」, 『스토리&이미지텔링』 19, 건국대학교 스토리앤이미지텔링연구소, 2020; 장성규, 「재난 소재 한국 소설의 미학적 전략」, 『구보학보』 27, 구보학회, 2021; 채대준, 「‘한국형 아포칼립스 비판’에 질문하기-퀴어/세대 아포칼립스 『해가 지는 곳으로』를 중심으로」, 『문화연구』 8(1), 한국문화연구학회, 2020.
- 5) 고봉준, 「재난의 생명 정치와 연대의 (불)가능성 - 2000년대 한국소설에 나타난 팬데믹 질병과 ‘종말’의 감각」, 『한국문예비평연구』 72,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21; 권창규, 「감염병 위기와 타자화된 존재들」, 『현대문학의 연구』 72, 현대문학연구학회, 2020; 김영삼, 「재난서사와 퇴행하는 공동체 - 박서련, 김유담, 최진영의 소설을 중심으로」, 『열린정신 인문학연구』 24(3), 원광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23; 김지윤, 「재난서사에 나타난 대안적 가족서사와 가족판타지-2010년대 이후 소설을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72, 우리어문학회, 2022.

성이 기초”한 서사인지를 알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연구자가 소설 속 ‘재난’을 “현대 문명의 이면에 은폐되어 있다가 등장한 ‘실재’의 형상으로 해석”하고 세대론적 차원에서 “재난에 대한 해결의 전망으로 연대의 가능성”⁶⁾을 분석하는 문제의식은 본 연구 시각과 일치한다. 하지만 인물 주체를 연대 가능성/불가능성으로 이분법적으로 유형화하고 정유정의 『28』에서 연대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

재난을 겪으면서 형상화된 공동체의 특성을 규명하기 위해 두 번째로 정동적 차원⁷⁾에서 논의된 선행 연구를 검토하였다. 연구자들이 혐오와 불안, 사랑과 공포 등 주체의 감정 측면에서 재난의 사회문화적 의미를 분석한 공통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치성에 주목하여 사적 영역인 감정을 통제하려는 정치적 움직임과 공포 정치를 고찰할 것이다. 여러 규범과 가치에 내재화된 남성중심적 사고방식이 어떻게 신체화된 젠더 수행성으로 드러나는지 연구 방향성을 설정하였다. 병을 옮길 수 있는 신체적 취약성을 젠더의 속성으로 가치 평가하고 여성의 행위를 정치적으로 구속하려 하기 때문에 신체와 권력 구조는 긴밀하게 관련된다. 사회적 삶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미시적인 권력 행위와 성차에 대한 접근은 부족하였기에 이를 분석하는 틀로 정동적 수행성을 고찰할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감염병을 둘러싼 젠더 레짐(Gender Regime)⁸⁾을 연구하기

6) 고봉준, 앞의 글, 9면, 32면.

7) 김영삼, 「구원 없는 재난서사와 혐오의 정서- 김애란의 『물속골리앗』과 손흥규의 『서울』을 대상으로」, 『현대소설연구』 78, 한국현대소설학회, 2020; 문형준, 「재난 시대의 정동: 애도의 가능성과 불가능성」, 『여성문학연구』 35, 한국여성문학학회, 2015; 서세립, 「재난 서사와 사랑 담론 - 2010년대 소설을 중심으로」, 『사이』 29,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20; 신진숙, 「팬데믹 사회의 감정구조와 미학적 대응 양상-2020년에 출판된 팬데믹 소설 앤솔ोज지를 중심으로」, 『문화와 융합』 44(1), 한국문화융합학회, 2022; 오혜진, 「출구없는 재난의 편제, 공포와 불안의 서사-정유정, 편혜영, 윤고는 소설을 중심으로」, 『우리문화회』 48, 2015; 이행미, 「코로나 이후의 소설과 혐오의 임계」, 『한국근대문학연구』 22(2), 한국근대문학회, 2021; 한광택, 「포스트코로나 멜랑콜리아」, 『비교문학』 84, 한국비교문화회, 2021.

8) 젠더는 생물학적 성(sex)으로 구분되는 단순한 속성이 아니라 사회적 역할로 구성된

위해 여러 형태의 사회정치적 배경과 메커니즘 중에서도 남성과 여성에게 차별적으로 주어지는 재난 공간에서의 젠더 수행성을 고찰할 것이다. 돌봄공동체인 가족 내에서 권력이 배치되는 양상과 신체에 성별화된 차이를 중심으로 살펴볼려 한다. 특히 정유정의 『28』과 최진영의 『해가 지는 곳으로』 소설은 디스토피아적 공간을 다양한 인물의 시점으로 서술하여 감염병이 집단적 공포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젠더 갈등이 드러나고 그 내부에 관습적인 성차별이 만연함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한 작품이다.

정유정과 최진영의 소설을 주요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감염 이후의 재난 서사를 다루면서 주제 의식을 부각하기 위해 서로 다른 배경과 경험을 지닌 인물들이 겪는 사건을 다중 시점을 전략적으로 사용해 객관적 증언처럼 전달하기 때문이다. 여성 인물들의 일상이 가족을 비롯한 다양한 인간 관계 안에서 재난 이후에 파괴된 현실을 밀도 있게 보여주고 있어 가족과 국가 공동체의 모순적인 성별 격차의 문제를 진단해 볼 수 있다. 또한 팬데믹 이전부터 존재하는 우리 사회의 내부적 감염 요인이 무엇인지 다각도로 성찰하면서 우리 사회의 견고한 이데올로기를 무너뜨리는 새로운 공동체의 표상을 제시하여 주목할 만하다.

이 연구에서는 소설에서 갈등의 주원인인 감염병이 가족 공동체의 공간 안에서 어떻게 여성 개개인의 신체에 체현되는지 젠더 불평등과 젠더 구속성을 중심으로 감염 동학을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사회구성체인 가족과 군대, 국가라는 집합체 내부에서 힘의 우위로 작동하는 공포 정치의 통치 방식을 고찰하고

정체성을 의미한다. 원래 레짐(regime)이란 “가치, 규범, 및 규칙들의 총합으로 인간의 행태나 인간 간의 상호관계를 일정한 방향으로 결정하는 틀”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때 “젠더 레짐이란 사회적 생산과 재생산의 영역에서 젠더 관계를 규정하는 가치, 규범 및 규칙을 포괄하는 ‘일반 원리’”로 해석할 수 있다. D. Sainsbury, *Gender and Welfare State Regimes*,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p.77.; L. Mosesdottir, “The State and the Egalitarian, Ecclesiastical and Liberal Regimes of Gender Relations”,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46(4), 1995, p.631.; 원숙연, 「젠더와 국가정책의 역학: 젠더-정책레짐 정립을 위한 이론적 탐색」, 『한국행정학보』 37(2), 한국행정학회, 2003, 229면 재인용.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작가가 보여주는 이상적 공동체성을 강조하려 한다. 바이러스의 위협이라는 절망적인 재난 상황 속에서 상하 위계의 구조로 작동되는 성별화된 몸과 주변의 권력관계를 밝히기 위해 두 편의 소설을 먼저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가족 공동체와 국가의 존재 이유를 질문하면서 성별적 억압과 내부 모순에 저항하는 이상적인 공동체를 구성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2. 재난 속 일상화된 공포와 지배-복종의 권력 구조

감염병을 주요 사건으로 다룬 일련의 서사에서 작가는 모든 일상이 일시에 무너지고 파괴되는 극한의 상황을 그려낸다. 작가 최진영은 ‘류’의 가족, ‘도리’의 가족, ‘지나’의 가족, 그리고 지나가 가족처럼 아끼는 이웃인 ‘건지’의 다중 시점⁹⁾을 서사 전략으로 삼아 바이러스로 가족구성원을 잃은 공동체가 마주한 불안과 공포의 감정, 그리고 생존을 위한 투쟁을 다양한 시각에서 형상화하였다. 건지를 제외한 주요 서술 화자는 모두 여성이다.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가족구성원이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고 재난으로 사회가 마비되어 무정부 상태가 지속되면서 운송수단인 탑차는 지나 가족이 함께 이동하면서 잠을 자고, 자신의 가족 공동체를 지킬 안전장치가 된다. 차와 기름, 음식과 무기는 남성의 관리하에 있어서 여성은 이동성이 제한된 채 남성에게 보호받는 타자화된 존재로 서술된다. 지나의 아버지는 수입 중고차 매매업을 하였기 때문에 감염병이 퍼지는 상황에서 자분을 여유롭게 확보할 수 있었다. 비싼 값에 차를 팔아 마련한 돈으로 생필품을 가득 실은 탑차에서 가족들의 목숨을 책임지는 리더의 역할을 맡는다.

9) 다중 시점, 또는 다중(적) 초점화는 제라르 즈네뜨가 정의한 ‘복수초점화’와 유사한 서사 전략이다. 다양한 각도에서 인물의 상황이 기술되기 때문에 재난의 피해 양상을 입체적으로 보여준다. 미케 발, 한용환·강덕화 역, 『서사란 무엇인가』, 문예출판사, 1999, 185-200면 참조. 제라르 즈네뜨, 권택영 역, 『서사 담론』, 교보문고, 1992, 177-182면.

총이 사람보다 많았다. 리볼버와 엽총. 건지를 제외한 **남자들만** 총을 가질 수 있었다. 운전석과 조수석에도 **남자만** 탈 수 있었다. 생필품은 지나 **아버지가 철저하게 관리**했다. 통조림 하나를 따더라도 허락을 받아야 했다. 쌍안경도 지도도 모두 **그가 가지고** 있었다. 그는 절대 짐칸에서 사람들과 같이 자지 않았다. 운전석에서 총을 품고 잤다. 지나가 나를 따라 탑차 밖에서 잔다는 것도 아는 듯했다.¹⁰⁾

도리리는 인물은 여동생 미소를 지키기 위해 한국을 떠나 안전한 곳을 찾아 헤매다가 우연히 길 위에서 한국인 지나를 만나서 그녀의 여정에 함께 하게 된다. 가족구성원이 아닌 여자라는 이유로 도리와 미소는 탑차의 바깥으로 내몰린다. 여성은 무기와 생필품을 지배한 남성 주체의 멸시와 위협적인 시선에 노출되어 있으며, 힘의 우위에서 밀려나 생사의 주도권을 갖지 못한다. 또한 여성의 존재는 재난의 불안정한 세계에서 감추어야만 하는 유약한 신체이자 보호받아야 할 주변적인 인물로 형상화된다. 도리는 동생 미소와 지나 가족과 함께 이동하지만 결코 탑차 안에서 잠을 자거나 밥을 함께 먹지 않는다. 남성 주체의 시선에 노출된 채¹¹⁾ 여성의 신체는 일방적으로 성추행을 경험하고, 인신매매와 강간 등 강력 범죄의 희생양이 된다.

누나를 **강간**하려고 했다. 적어도 세 명은 그렇다. 아저씨도 하려고 했을까. 이런 일, 오늘이 처음일까. 그동안 누나는 무사했던가. 우리와 함께라면 안전한 줄 알았다. 어른들이 총과 차로 우리를 지켜 주는 줄 알았다. 흉하고 위험한 사람은 **바깥**에만 있을 거라 믿었다. (『해가 지는 곳으로』, 74면)

10) 최진영, 『해가 지는 곳으로』, 민음사, 2017, 53면. 이하 인용문은 제목과 인용 변수만 표기함(인용자 강조 표시).

11) 탑차에 탈 때부터 경계했다. 난 그들의 가족이 아니었다. 길에서 주운 **여자**에 불과했다. 지나가 내 옆에 없을 때면 나를 **노골적으로 훑어보는 사람**도 있었다. **멸시하면서도 권위적인 눈빛**이었다. **의도적으로 내 몸을 건드리거나 힘으로 위협하면서 가스롭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 느낌은…… 내가 별레 같았다. 나를 **경멸하고 무시하면서, 하찮은 듯 깔보면서** 내가 **여자라는 점만**을 각인하던 자들. 최대한 그들 가까이 가지 않았고 시선도 말도 섞지 않았다. 내 존재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해가 지는 곳으로』, 105면)

감염을 통제하고 재난 상황을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영웅주의적 남성 인물이 결정 주체가 되며 여성은 짐칸에 머물도록 강요당한다. 도리는 어린 동생을 돌보며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자립적인 주체로서의 역량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지나의 가족은 생존 투쟁에서 여성을 배제하고 남성만의 공간을 점유한다. 탑차 안에서 드러나는 통치 방식은 재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권위적이고 강인함을 지닌 남성 주체가 운전석에 앉아 여로를 결정하면서 그곳에 접근이 차단된 여성을 하위주체로 권력관계¹²⁾를 나눈다. 소설에서 가부장적 관습을 따르는 여성들이 오히려 같은 여성을 남성에게 복종해야 하는 타자화된 하위주체로 인식하는 장면에서 성별적 억압이 고착화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깟 일로 사람을 죽이다니 아주 악질이다. 한두 명 죽여 본 솜씨가 아니다. 한국에서도 강도 짓을 하다가 이곳까지 왔을 거다. 도통 말도 없고 자기 얘기도 안 하는 게 다 이유가 있었다. 우리가 살인마를 태우고 여기까지 왔다. **고분고분하게 굴면 지 동생이랑 같이 곱게 풀어 줄 수도 있었을 텐데. 이런 세상에서 몸 좀 대 주는 게 무슨 대수라고, 아니 그럼 공짜로 트럭을 탈 생각이었던 것이냐…….**

(『해가 지는 곳으로』, 81-82면)

지나의 가족구성원 중 일부가 도리에게 폭력을 가하고 심지어 강간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신체에 가해지는 권력의 성차를 확인할 수 있다. 성폭력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지나의 작은 삼촌이 총에 맞아 죽게 되는데 지나의 가족들은 여성의 몸을 탑차에 승차한 대가이자 소유물로 인지¹³⁾한다. ‘그깟 일’로 ‘고분고분’하지 못 하고 ‘몸 좀 대주’지 못하고 ‘공짜’로 트럭에 오른 도리를 강도이자

12) 신체적 권력관계를 살펴봄으로써 남성과 여성의 경험과 장소 및 공간에 대한 접근성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권력관계의 기반이 무엇인지, 그러한 권력관계가 어떻게 행사되는지 알 수 있다. R. Panelli, *Social Geographies: From Difference to Action*, Sage: London, 2004, p.66. 존 앤더슨, 이영민·이종희 역, 『문화·장소·흔적』, 한울아카데미, 2013, 154면 재인용.

13) “특정 집단에게 차별화된 이동성과 통제는 이미 취약한 계층의 영향력을 더욱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 도린 매시, 정현주 역, 『공간·장소·젠더』,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5, 270면.

살인마로 비난한다. 성범죄의 피해자에게 가해진 폭력적인 언행을 통해 재난 상황에서는 권력관계와 지배관계에 의해서 물질적으로 신체가 종속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정유정의 『28』에서도 다중 시점이 전략적으로 서술되어 다양한 인간성이 훼손되는 현장을 다른 목소리로 대화하듯 들려주어 독자가 판단하게 만든다. ‘수의사인 서재형과 기자 김윤주’의 시점, ‘구급대원 기준’의 가족과 ‘연쇄살인범 박동해’의 가족, ‘간호사 노수진’의 가족, 그리고 동물인 ‘링고와 스타’ 개의 시점으로 여러 인물 유형을 통해 감염병 이후 급속도로 파괴되는 공동체의 실상을 보여준다. 수의사, 의사, 간호사, 구급대원, 기자 등 다양한 직업군이 장면마다 나타나는데 여성의 경우 감염병 위기 상황에 필수적인 전문업종에 종사하더라도 남성과 동행하지 않으면 이동에 제한받으며 성폭력의 위협에 노출된다.

“같이 살자.”는 말을 들은 게 바로 그때였다. 말을 놔버린 것도, 그녀의 어깨에 손을 척 올려놓은 것도 그때였다. 뜨거운 에스프레소가 뉘싯바늘처럼 목젖에 걸렸다.

“너도 나 싫어하는 거 아니잖아.”

머릿속 촉세의 해설에 의하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와 같은 말이었다. 문대성의 시선은 이미 자신을 침대에 드러눕혀놓고 있었다. 성미대로 하자면, 불알을 건어차 주고도 남을 눈빛이었으나 어깨에 붙은 손을 털어내며 “사양할게.” 하고 말았다. 이후 그 집에 가지 않았다. ... 경원 매일로 찾아간 쪽도, 길잡이를 부탁한 쪽도 자신이었다. 무엇보다 차가 필요했다. 문대성은 그 점을 줄곧 주지시켰다. 말로, 태도로, 표정으로.

(『28』, 397-398면)

기자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김윤주는 취재 목적으로 동료 기자에게 이동 수단을 부탁하지만 재난 상황에서 여성의 일상적 행위는 비판받고 억압된다. 범죄가 일상화된 불안정한 상황에서 소설 속 인물들은 여성의 몸이 취약하고 허약한 육체성을 지니기 때문에 남성에게 종속되어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여성 억압을 정당화¹⁴⁾한다. 여성에게 감염병보다 더 두려운 일은 육체적인 성차를 확인한 남성들이 약육강식의 논리로 여성을 취하려는 행위가 일상화된 것이다. 기자인 윤주와 간호사 수진이 타인을 구하기 위해 바이러스 위협 속에서도 분주하게 노력하지만 그들에게 허용된 장소는 남성과의 생물학적 기능에 따라 구분된 집의 영역으로 한정¹⁵⁾된다.

대낮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놈들은 어떻게 **집 안**으로 들어 올 수 있었을까. **거리에서 이런 일이 다반사로 일어난다**는 얘긴 들었지만 직접 현장을 보기는 처음이었다. 더하여 여긴 **수진의 집**이었다. 그녀가 어서 오세요, 하며 문을 열어주진 않았을 텐데. (『28』, 416-417면)

수진은 감염자들이 속출하는 병원에서 인력난으로 힘들게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매일 아버지의 밥을 정성껏 준비하는 일을 반복적으로 한다. 수진의 아버지는 “코앞에 대령하지 않으면 양말조차 못 찾아 신는 ‘광산 노씨 만호공파’ 남자였다. 다른 건 몰라도 자신이 없는 동안 드실 끼니거리는 준비해놓아야 했다.”(『28』, 183면) 생사가 오가는 급박한 현실에서조차 강박적으로 제사 준비와 아버지의 끼니를 챙기는 순종적인 모습을 보인다. 결국 사라진 아버지를 위해 요리를 계속하면서 음식 쓰레기를 버리러 집 앞에 나간 뒤 집 안에 침입한 남성들에게 무차별적으로 강간을 당하게 된다. 일상적인 자신의 사적 공간에서 유린당하고 정신을 놓아 버린 수진의 서사를 통해 소설은 가부장 제도의 가치에 순응한 여성의 수동적 삶을 불행하고 허무한 죽음으로 형상화한다.

일반적으로 가부장제는 가족 내에서 아버지의 법칙이 강제되는 사회적 통제

14) 엘리자베스 그로스는 “가부장제의 억압은 남성보다는 여성을 몸과 보다 더 밀접하게 연결함으로써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이런 동일시를 통해 여성의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역할을 생물학적인 관점에 국한해 그런 억압 자체를 정당화한다”라고 주장한다. 엘리자베스 그로스, 임옥희·채세진 역, 『몸 페미니즘을 향해: 무한히 변화하는 몸』, 꿈꾼문고, 2019, 54면.

15) “성폭력에 대한 두려움은 말 그대로 여성들을 ‘자신의 자리’, 즉 집 또는 사적 공간에 가둬놓는 수단으로 작용한다.” 로빈 라일, 조애리·강문순·김진옥·박종성·유정화·윤교찬·이혜원·최인환·한애경 역, 『젠더란 무엇인가』, 한울아카데미, 2015, 248면.

를 의미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집단으로서의 남성이 집단으로서의 여성보다 우월한 것으로 구조화되어 여성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진 것을 상징되는 제도”¹⁶⁾이다. 수진에게 아버지의 말은 ‘만호공파의 수많은 가훈’(『28』, 193면)처럼 거부할 수 없는 법칙이다. 미국의 젠더 폭력 연구자 에번 스파크는 “강압적 통제(coercive control)”라는 개념을 통해 폭력이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정관념보다 훨씬 더 깊고 광범위한 수준에 걸쳐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여성들이 경험하는 폭력의 본질이 신체적으로 얼마나 심하게 공격당했는지에 있기보다는 여성들의 삶을 통제하고 지배함으로써 여성들의 자유와 자율성을 침해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¹⁷⁾ 재난의 현장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더 강압적인 통제 상황에 놓인다. 재난 서사에서 신체적인 취약성을 약점으로 삼아 여성을 지배하려는 남성 중심의 성별화된 권력관계가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유정의 소설 『28』에서 감염병 바이러스보다 더 무섭고 위험한 사회적 갈등 요인을 배태하고 있는 사건은 연쇄살인범이 된 박동해의 가족 서사에서 제시된다. 박동해의 아버지인 박남철은 화양의료원에서 의사로 인정받고 일하지만, 집에서는 왕처럼 군림한다. 그는 아버지의 권위를 지배 권력으로 여기고 자신의 기준에 못 미치는 아들을 개 목줄, 골프채, 심지어 사냥용 공기총 등을 사용해 비인간적이고 비윤리적인 억압적 행위로 굴복시켜 왔다. 감염에 대한 공포와 폭력은 예측 불가능한 재난에 속하지만 가정 폭력은 집합 행동을 유발하고 예고된 갈등의 위험 요소이다. 아홉 살 때부터 지하실에 갇히고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외면받은 동해가 그 울분을 개를 학대하고 죽이면서 희열을 느끼고, 결국 살인범이 된 것은 재난과 관계 없이 아버지의 통치 방식과 닮았다.

손에 권 라이터를 앞으로 쭉 뻗으면서 그는 한 발짝 더 나아갔다. 아버지는 한 발짝 더 후진했다. 두발짝 만에 위치는 좀 전과 반대로 바뀌었다. 아버지가 밧줄이 걸린 창문 앞, 동해가 책상 앞. 동해는 다리를 뻗어 책상 밑에 놓인 가방을 발끝으로 끌어낸 후, 한쪽 팔을 내려 화염병 하나를 뽑아 들

16) 린다 맥도웰, 여성과 공간연구회 역, 『젠더, 정체성, 장소』, 한울아카데미, 2010, 45면.

17) 한국여성연구소 엮음, 『젠더와 사회』, 동녘, 2015, 324-325면.

었다. 가방은 발꿈치로 걷어차서 아버지 쪽으로 보냈다. 병 깨지는 소리가 시원스러웠다. 아버지는 미끄러지는 가방을 피해 옆으로 한 발짝 물러났다. 충구는 여전히 동해의 이마를 정조준하고 있었다. (『28』, 377면)

동해라는 인물의 공격성은 가족에게만 향하지 않고, 재형과 윤주, 동물인 링고와 스타에게 영향을 미친다. 동해의 방화로 아무 관련이 없는 어린 승아가 죽고 친구 강진만은 추락사한다. 결국에는 무력으로 타인을 억압하려는 동해와 아버지 남철은 폭력적인 방식으로 다투다 죽음을 맞게 된다. 재형과 윤주의 시점에서는 가해자인 동해를 비판하는 동시에 어린아이의 무고한 죽음이 재난의 비극성을 드러내게 만든다. 또한 링고의 시점에서 동해를 향한 분노에 감정이입하도록 하고, 동해의 시점에서는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로서 억눌린 가부장적 억압을 보여주었다. 작가는 동일한 사건을 겪는 서로 다른 입장을 평등하게 전달하기 위해 다중 시점을 통해 플롯이 교차하도록 배열¹⁸⁾하였다.

정유정과 최진영은 감염병으로 혼란한 사회상을 거시적으로 보여주지 않는다. 인물과 인물이 관계 맺는 사적인 경계 안에서 행해지는 타인에 대한 배제와 통제가 구조화된 가부장적 담론¹⁹⁾을 구체화한다. 서술 기법으로 다양한 시점에서 초점화 대상을 통해 가족 공동체가 배제와 분리로 교차되고 인물 구성에 가해자가 피해자의 위치로 전복되도록 힘의 우위를 무너뜨리는 서사 담론을 형성한다. 최진영의 소설에서 지나의 아버지와 남자 구성원들이 가부장적 전략을 내세워 약한 타자를 지배하려는 남성적 젠더 수행성을 보이지만 결국 힘의 논리로 굴복당하고 무장한 집단에 의해 억압받는다. 정유정의 소설에서는 아버

18) 노먼 프리드먼은 시점을 하나의 기법으로 보고 “효과적인 형식으로 플롯을 구체화하”는 서술 효과를 강조하였다. 노먼 프리드먼, 『소설의 시점』, 김병욱 편, 최상규 역, 『현대 소설의 이론』, 예림기획, 2007, 522면.

19) 실비아 윌비는 “가부장제를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고, 억압하고 착취하는 사회 구조와 관습의 체계”라고 정의한다. 사회 구조의 관계성을 체계적으로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가부장적 관계들, 국가, 폭력, 성성(sexuality), 문화 제도 등 다양한 논의가 수반될 수 있기에 담론으로 접근할 수 있다. 실비아 윌비, 유희정 역, 『가부장제 이론』, 이화여자 대학교 출판부, 1996, 41면 참조.

지의 가정 폭력을 학습한 이들이 동일한 방법으로 범죄를 일삼지만 결국 자신이 혐오하던 개에게 죽임을 당한다. 아버지 박남철은 자살로 생을 마감하면서 작가는 이데올로기적 폭력의 허상을 객관화하는 서술적 형상화 작업을 이어간다.

“시점은 감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소설 속 인물들과 그들의 행동에 대한 독자의 반응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²⁰⁾에 중요하게 살펴봐야 한다. 우스펜스키는 일상적 화법에서의 “시점 문제로서의 명명(命名)”은 이데올로기의 표현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²¹⁾고 강조한다. 정유정과 최진영은 재난 서사를 겪는 서로 다른 환경의 여러 인물의 이야기를 교차해 가면서 플롯을 구성하였다. 선인과 악인, 남성과 여성, 인간과 이종 간의 대화가 오가면서 재난에서 살아남은 여성 인물뿐만 아니라 상이한 관점을 지닌 여러 인물을 교차하면서 작가는 감염/전염의 위험이 바이러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임을 전달한다.

그런데 두 편의 소설에서 여성 인물들은 신체의 취약성으로 억압당하는 피해자로 머물지 않는다. 모순적인 이데올로기적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젠더 레짐의 기본 원리를 허물고 돌봄과 희망의 연대를 형성하게 된다. 다양한 피해의 양상이 인과적 사건으로 연결되면서 폭력에 대응하는 여성들의 서사적 진술이 중첩되고 신체적 접촉을 통해 연대가 구성된다. 결국 소설에서 보여주는 재난 이후의 세계는 새로운 공동체의 관계성을 통찰하기 위해 여성성을 중심으로 그 가능성을 감각적 신체화의 양상으로 그려낸다.

3. 규율 권력의 해체로 매개되는 감각적 몸/신체

정유정의 『28』의 소설 공간인 화양시가 봉쇄된 이후, 그리고 최진영의 소설 『해가 지는 곳으로』에서 한국, 러시아 울란우테, 톰스크에 내몰릴 때까지 감염병

20) 데이비드 로지, 김경수·권은 역, 『소설의 기교』, 역락, 2010, 52면.

21) 보리스 우스펜스키, 김경수 역, 『소설구성의 시학』, 현대소설사, 1992, 49-56면 참조.

이 급속도로 퍼지면서 공권력이 무너지고 국가가 제 기능을 담당하지 못하면서 공동체의 경계가 흐려진다.²²⁾ 무력으로 군대가 시민들을 통제하고 학살하며, 무장 단체 군인들은 전투태세로 무고한 사람의 생명까지도 경시한다. 극한 상황 속에서 남녀 모두 공포와 불안을 경험하게 되지만 장소 체험에 있어 다른 양상을 보인다.

군대 조직이 공적 영역에서 체계적으로 살아남은 이들을 관리하지만 여전히 남성 중심의 권력과 제도 안에 여성은 힘없는 존재로 형상화되고 성적 도구로 경계 지어진 젠더 구속성을 지닌다. 관습적으로 젠더화된 몸은 “각각의 젠더와 그들이 점유하고 생산하는 장소를 억압하고 제한하도록 기능”²³⁾하게 된다. 관리의 대상으로 구별된 여성들은 건강 상태를 확인받은 이후에야 숙소로 들어갈 수 있다. 재난으로 일상이 재편된 공간에서 여전히 여성의 몸은 규율 권력의 지배 아래 구속되어 있다.

무장한 남자들이 트럭에서 내리는 사람들을 **남자와 여자로 나누었다**. 그들은 고탈을 지르거나 때려서 말을 듣게 하지 않았다.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머뭇거리는 낌새를 조금만 보이면 머리에 총을 쏘 바로 죽였다. 아파트 뒤편의 커다란 컨테이너 건물에 **여자만 몰아넣었다**. 지붕이 높고 창이 없었다. 대형 매트로 쓰던 건물 같았다. 남자들 몇이 들어와 **여자들의 건강 상태**를 대충 체크하며 영어와 러시아어로 출신 국가와 나이를 물었다.

(『해가 지는 곳으로』, 135면)

그곳에서 방호복 차림의 **남녀관리자가 신체검사**를 맡고 있었다. 그녀는 **여자 관리자가 있는 방에서 눈을 까 보이고 옷을 흘랑 벗어 몸에 반점이 없다는 걸 확인시켜준 다음, 소독방으로 인도돼 알몸에 소독 분무 세제를 받았다**. 불에 타 걸레가 된 옷은 쓰레기통으로 들어갔다. 대신 마스크, 양말, 속옷, 트레이닝복, 방한복, 실내용 운동화, 담요, 수건, 세면도구 등을

22) “국가 권력이 자행하는 대규모 살상은 권리의 근원적인 박탈 과정이자 공동체 성원을 결정하는 행위이다.” 한성훈, 「제노사이드와 근대 이성에 대한 성찰-관계의 사회학과 공유·환대의 공동체 윤리」, 『문화와 사회』 19, 한국문화사학회, 2015, 90면.

23) 존 앤더슨, 앞의 책, 251면.

지급받았다. 여자 관리자는 2층으로 올라가 진짜 샤워를 하라고 했다.

(『28』, 338면)

먼저 최진영의 소설 『해가 지는 곳으로』에서 컨테이너 건물에 있는 여성들은 출신 국가와 나이와 상관 없이 남성들의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관리된다. 무장한 군인 병력은 힘과 권력으로 여성의 신체를 끊임없이 통제하면서 ‘실존적 외부성’²⁴⁾을 지닌 장소를 만들어 낸다. 여성의 몸은 성별화된 대상으로 통제되고 지배구조 안에서 물화된 대상으로 여겨진다. 전쟁을 겪는 여성의 몸에 대해 성적 이미지를 기입하는 남성적 서술 목소리는 젠더화된 몸에 대해 경계를 구획하고 공동체의 외부(배신자)를 배척한다. 성적으로 유린당하면서 죽음의 위협 앞에 놓인 여성들에게 공동체를 지속하기 위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강요한다.

포로였지만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군인이 된 지나 아버지는 자기 딸이 매일 다른 군인들에게 강간당하는 상황에서도 무력 투쟁에 대해 신념을 가진 채 새로운 국가의 주인이 되기를 바란다. “내 편이 있고 의지할 동료가 있는 세상이 좋은 거”라면서 “모두 같은 편”이라며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한다. 딸에게도 “당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함께 싸운다고 생각”(141면)하라고 전쟁의 당위성을 강요하고 결속을 요구한다. 가장으로서 자신의 권력을 내세워 가족들의 안전을 지키려던 아버지의 꿈은 딸을 유린하는 무장 단체와 공통의 목표로 상호 연결되면서 적자생존의 규율은 해체된다.

소설은 사회체계가 무너진 현실을 전면화하면서 신체적 우위를 내세운 남성 주체가 주장하는 가족 공동체의 질서와 국가의 경계가 언제든 폭력 앞에 무너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보수적인 가부장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고, 가족이라는 소속감을 강조하며 공동체의 경계를 고정된 것으로 만들고자 한다. 하지만 자신의 공동체에 소속되지 못한 타자와 이방인에게 집단적인 이기심을 보이고

24) 실존적 외부성(existential outsidership)은 무관심, 소외, 돌아갈 집의 상실, 세계에 대한 비현실감과 소속감의 상실을 포괄한다. 에드워드 렐프, 김덕현·김현주·심승희 역,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2005, 119면.

배타적 폭력을 행하는 가족 이데올로기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허약한 환상으로 형상화된다.

아빠가 나를 잡고 흔들었다. 널 지켜 줄 사람들이 누군지 똑똑히 보라며 소리 질렀다. 주변을 둘러봤다. 친척들이 나를 보고 있었다. 엉망으로 울고 있는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의 이름을 떠올렸다. 삼촌이나 고모가 아닌 **그들만의 고유명사를**. 그들과 이름을 묶으니 남처럼 느껴졌다. **가족이 보이지 않았다**. 우리는 충분히 서로를 배신할 수 있다. 때릴 수 있고 버릴 수 있다. 강간할 수 있고 죽일 수 있다. **가족끼리는 절대 그러지 않으리라**는 **아빠의 확신은 성경책의 종잇장보다 허약하다**.

(『해가 지는 곳으로』, 83-84면)

작가 최진영은 재난 상황에서 가족만이 서로를 지켜 줄 수 있다는 폐쇄적인 가족 이데올로기에 균열을 낸다. 더 큰 권력과 힘 아래에 수동적일 수밖에 없는 남성 주체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면서 가부장적 권력이 언제나 해체될 수 있는 허상임을 보여준다. 여성의 몸을 거래하고 획득할 수 있으며 당연하게 남성을 위해 기능하는 대상으로 여성의 존재를 구속하고 억압하는 행위가 그대로 지나의 가족에게 행해진다. 지배와 복종의 가부장적 권력 구조가 이와 유사한 군대 조직으로 그대로 옮겨가면서 야만성을 지닌 가부장과 국가의 공동체성을 동시에 거부하도록 만든다.

길리건은 “정의의 윤리를 내세우며 권리를 중요시하는 남성과 달리 여성은 자신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때나 받지 못할 수도 있을 때나 다른 사람을 돌보지 않는 것을 더 걱정하기 때문에 이런 여성적 접근을 돌봄의 윤리”²⁵⁾로 정의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해가 지는 곳으로』에서 규율과 정의를 내세우는 남성 중심의 가족 공동체와 군사 공동체의 균열과 대비되는 지점에 최진영의 소설은 여성적 돌봄이 새로운 관계의 기본적 토대임을 강조한다. 내포 작가는 사회적 약자로 전쟁 포로로 갇힌 여성들이 서로를 보살피면서 사랑하는 행위를 서사 속에

25) Thomas Sue and Clyde Wilcox, *Women and elective office: Past, present and futur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pp.188-202. 로빈 라일, 앞의 책, 299-300면 재인용.

장면 제시로 그려낸다.

정지 화면이 풀려 버린 듯 두 사람이 조금씩 가까워져 **두 손으로 생생하게 서로의 얼굴을 만지고 부둥켜안고 상처를 활아 주듯 입을 맞출 때**, 우리 주변에는 수십 명의 지치고 야윈 사람들이 제각각 바닥에 너부러져서, 무거운 몸을 벽에 기대고 앉아서, 구겨진 종이처럼 웅크린 채 망연히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다. (『해가 지는 곳으로』, 164면)

처음 만났을 때부터 도리와 지나는 서로를 성적으로 욕망하며 이성애 중심의 가족 제도에서 탈피하는 모습을 보인다. 전통적인 가족 제도에서 “외부의 힘에 통제당하지 않고 자신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남성의 자율성과 독립심이 남성성의 상징이라면 부드러움, 돌봄과 의존은 가정의 영역이자 여성성으로 간주”²⁶⁾ 되었다. 소설 결말에서 작가 최진영은 여성 인물 간의 동성애적 행위를 통해 관습적으로 질서화된 성정체성을 이성애로부터 분리하여 이분법적 성 규범을 약화시키고, 상호 의존적인 돌봄과 배려의 젠더 실천이 억압적인 무력과 전통적인 가족 제도보다 가치 있는 공동체성임을 강조한다.

해민과 나 둘뿐이었다면 견디 내지 못했을 것이다.

도리와 지나가 주고받는 눈빛과 미소의 깨끗한 표정 속에서 마치 내가 보호받는 기분이었다. 그들과 함께 있을 때는 공기가 달라졌다. 살인과 폭력과 치욕과 체념에 둔감해지지 않을 수 있었다. 온갖 나쁜 것 속에서도 다르게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잊지 않을 수 있었다. 해민에게 좋은 말을 해줄 수 있었다. 쇠약해진 도리를 위해 지나의 자기 일을 서둘러 끝냈다.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미소가 혹시라도 총에 맞을까 우리는 늘 군인을 주시하며 미소의 입과 귀가 되었다. 해민이 아빠를 찾으려 떠날 때마다 지나의 마치 직접 본 사람처럼 아빠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해민과 엄마를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상세하게 이야기해 줬다. **들러앉아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 붙잡을 손이 있었다.** (『해가 지는 곳으로』, 165면)

이성애적 가족 공동체원인 ‘류’의 사유를 통해 도리와 지나의 만남이 극적인

26) 임옥희, 『펜데믹 패닉 시대, 페미-스토리노믹스』, 여이연, 2021, 38면.

장면²⁷⁾ 속에서 형상화되며 관계의 미학이 강조된다. 가족과 군대 집단이 ‘살인과 폭력’으로 제시되어 남성성을 비판적으로 사유하고, ‘치욕과 체념’을 강요하는 왜곡된 여성성을 수용하지 않는 여성 주체의 모습에서 ‘젠더를 넘어선 젠더’²⁸⁾의 관계성을 가능하게 한다. 여성 포로들은 군대의 내부 질서와 가부장적 규율 권력에 구속되지 않고 타자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는 행위를 기반으로 서로 힘을 합쳐 탈출에 성공한다.

기존의 가족이데올로기가 아닌 동성애적 애정 관계를 재난 서사의 마지막에 형상화하면서 소설은 “가족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의 감정, 그리고 외부적인 억압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 모두를 함께 공유”²⁹⁾ 하도록 신체를 매개로 감각을 전이시킨다. 동성애를 분석한 연구에서 “가부장제의 시선에 의해 여성의 육체가 도구적으로 타자화되는 과정에서의 동성애는 성별 차이와 차별을 넘어선 다원적 조화의 가능성을 탐색”³⁰⁾ 한다고 규명한 바 있다. 예측 불가능한 재난의 시대에 가족의 역할과 모습이 무엇인지 감염의 주원인을 공동체 내부에서 확인하면서 최진영의 소설은 이데올로기적 규범과 가치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무의미한 성별 관계를 허문다. 통제할 수 없는 바이러스처럼 우리 사회의 고정된 이데올로기적 구조인 젠더 레짐 형태에서 사회적 관계들의 취약성을 발견할 수 있다.

작가 최진영이 젠더 레짐의 가치와 규범을 동성애적 사랑으로 균열을 낸 것처럼 정유정은 『28』에서 인간보다 더 헌신적인 사랑으로 서로를 보살피는 동물(개)의 시점을 통해 인간성의 위선과 권력 구조로 서열화된 공동체의 모순

27) 최진영은 소설에서 지나의 시점에서 “거기 도리가 있었다.”(162면), 도리의 시점에서 “거기 지나가 있었다.”(163면)라는 최소한의 서술만 배치하여 텍스트의 여백을 비우고 독자로 하여금 작중 인물들의 심리적 동요에 개입하도록 한다.

28) 래원 코넬, 안상욱·현민 역, 『남성성/들』, 이매진, 2013, 123면.

29) 최성실, 「한국문학의 ‘이웃’ 표상-낯선 타자와 공동체 윤리학」, 『시민인문학』 26, 기대학 교 인문학연구소, 2014, 82-83면.

30) 임은희, 「2000년대 동성애 소설에 나타난 몸적 주체 양상과 타자성」, 『한중인문학연구』 45, 한중인문학회, 2014, 173면.

을 비틀어 보여준다.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고 사랑하는 대상의 죽음 이후 복수하기 위해 존재하는 링고의 목소리를 의인화하여 들려주면서 진정한 사랑의 필요조건이 무엇인지 깨닫게 만든다. 가족끼리도 서로 죽고 죽이는 비인간적인 모습과 대비되어 링고와 스타 사이의 애정과 신뢰의 관계는 더욱 두드러진다.

링고는 화해하고 싶었다. 가까이에서 스타의 눈을 들여다보고 싶었다. 시간이 좀 흘렀으니 가능할지도 몰랐다. 그는 배를 깔고 엎드린 자세로 스타에게 기어갔다. **촉촉하게 젖기 시작한 그녀의 코에 코를 맞댔다. 입술을 뺏고 귀를 비볐다.** 스타는 으르렁대지 않았다. 얼굴을 돌리지도, 밀쳐내지도 않았다. 화해 요청을 못 이기는 척 받아들였다. 링고는 스타와 얼굴을 맞대고 엎드렸다. **시선이 마주치자 안도와 온기가 그를 감쌌다.**

(『28』, 244-245면)

안정감 있는 애정 관계에서 신체적 접촉은 감정적 연대를 이루는 기본적인 요소가 된다. 정유정의 소설에서 또 다른 굳건한 사랑을 보여주는 관계는 재형과 윤주의 만남으로 서사화된다. 수의사인 서재형을 오해해서 비판하는 기사를 내보내고, 재형은 그로 인해 사회적인 비난을 받게 된다. 기자 김윤주의 잘못으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게 되었지만 고아가 된 소녀 승아와 버려진 개들을 함께 돌보면서 타자의 죽음을 경험하고 슬픔을 공유하게 된다. 신체를 토대로 (『28』에서 동물을 포함한) 인간은 다른 이의 삶에 반응하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한다. 재난 이후에 황폐화된 세상에서 신체적 감각을 통해 안정감을 얻는다. 결국 규율 권력으로 억누르고 강제하는 폭력적인 힘과 대비되는 공감과 애정을 기반으로 한 접촉을 통해 공동체를 연결하는 관계성이 회복된다. 작가는 감염 위험을 극복하는 진정한 치료제는 몸이 맞닿은 감각을 통해 인간 사이에 감정을 공유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관계에 있음을 보여준다.

그녀는 재형이 자신을 **끌어안는 걸 느꼈다. 가만가만, 어깨를 토닥거리**
는 손을 느꼈다. 그 손은 그녀의 몸에 말을 걸어오고 있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28』, 242면)

무엇보다 윤주의 얼굴을 볼 수 있어 좋았다. 출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누가 보든 말든 달려와 **끌어안고** “재형 씨”, 하고 맞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기적 같았다. **어린애를 다루듯, 궁둥이를 토닥이며** “아이고, 내 새끼 왔쨌.” 할 때만 빼고, 이런 상황, 이런 시기가 아니었다면 더 좋았을 기적이었다. 적어도 **안고 싶은 욕망**을 누르느라 찢찢매는 일은 없었을 테니까.

(『28』, 385면)

주디스 버틀러가 강조한 것처럼 “신체는 항상 자신이 할 말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과 영향들에, 자신이 예측하거나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사람들과 영향들에 노출되어 있고, 이런 사회적 체현의 조건들은 우리가 온전히 간여하지 않았던 조건들”을 만들어낸다. 정유정 소설에서 재난을 경유하며 “예측하지 못한 조건들에서 연대가 출현”³¹⁾ 하게 된다. 여러 작중 인물들의 관계를 통해 소설은 강제적 복종과 신체적 통제를 당연시하는 젠더 레짐 체계 속에서 배제와 분리의 가부장적 전략이 아니라 상호 의존적인 소통과 연대의 감각을 보여준다. 재난을 경험하면서 소설 주인공들은 행위를 통해 공동체적 감수성을 제시한다. 규율 권력을 해체하면서 작가는 관계 속에서 감각이 매개되어야만 현재의 재난을 이겨낼 진정한 회복이 일어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재형은 자신이 소리 내어 링고를 불렀다고 생각했다. 링고는 몸을 움찔했다. 그가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던 밤과 같이. 몽롱해져가는 시선으로 허공을 더듬었다. 자기를 부른 자를 찾는 것처럼.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이름이 불린 것처럼. 그 순간을 향해 재형은 “내가 불렀어.”라고 말해주었다.

세상이 의식 바깥으로 훌쩍 물러났다. 어둠이 급류처럼 쳐들어왔다. 그를 휘감아 시간의 암연으로 끌고 내려갔다. …

심홍의 어둠이 지평선으로 내려앉았다. **붉은 하늘 너머에서 윤주의 얼굴이 빙영처럼 어른거렸다. 숨결이 편안해져왔다. 그리운 냄새가 머릿속으로 밀려들었다. 따뜻한 혀가 눈두덩을 핥았다. 무한한 신뢰와 애정이 담긴 호박색 눈이 그에게 물어왔다.**

31) 주디스 버틀러는 “통제할 수 없는 슬픔을 겪고 나서 타인에게로 이양되고 자신을 초월하는 존재가 되고 우리 삶이 아닌 다른 삶에 연루되는 방식으로서의 사회성을 강조한다.” 주디스 버틀러, 김응산·양효실 역, 『연대하는 신체들과 거리의 정치』, 창비, 2020, 219면.

“대장, 내 아이들을 어쨌어?”(『28』, 469-470면)

정유정과 최진영 두 작가 모두 감염병이 만연한 재난 공간을 소설의 주배경으로 삼고 가족과 군대 등 권력 관계를 기반으로 한 공동체의 이데올로기를 비판적으로 형상화하지만 바이러스의 진원지나 발현 특성, 치료제에 대해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보다 더 무서운 갈등 요소는 인간성이 사라진 주변의 사람들과 익숙한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는 집단 이기주의에서 발생한다. 소설에서 주요 인물들은 바이러스에 감염되거나 병들지 않고, 무력으로 타인을 공격하고 억누르려는 사람들에 의해 존재의 의미를 박탈당하고 생명을 잃는다. 두 편의 작품에서 가족 공동체가 해체된 이후에 불안정한 신체들이 어떻게 결속되면서 젠더 수행성이 새롭게 구성되는지 확인하였다. 결국 소설에서 폐허가 된 세상에서 사람과 사람 간의 감각이 체현되어야만 고유한 존재로서의 의미와 가치가 형성되고 재난을 이겨내는 진정한 회복이 일어난다.

4. 결론: 현실 속 바이러스의 진단과 면역 장치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코로나 시대는 위기인 동시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 수 있는 전환점이 된다. 코로나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도시가 봉쇄되고 당연하던 일상이 멈추면서 세대와 종교, 인종과 성별 차이로 공동체 내부에서 서로 비난하고 공격하는 일들이 수없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사회 문화적 갈등을 고찰하기에 문학 작품은 유효한 분석 대상이 된다. 감염을 다룬 재난 서사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기에 일상성에 드러난 인간의 본성과 사회구조적인 문제들을 문학적으로 사유할 수 있게 한다.

지금까지 논의한 정유정과 최진영의 두 편의 소설을 보면 작가들은 재난의 상상력을 서사화하면서 결국 집단적 공포가 어떻게 사회를 파괴하고 인간 본성의 문제가 무엇으로부터 기인하였는지 말하고 있다. 또한 두 소설이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치료제는 바이러스를 이겨낼 면역 장치가 공포심을 조장하고 서로

의 거리를 두는 행위가 아니라, 역설적으로 '신체적 접촉'에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즉 친밀한 돌봄과 사랑을 바탕으로 정동적 평등³²⁾의 가치를 소설은 명료하게 보여주고 있다. 팬데믹의 공포 속에서 공동체적 유대가 깨진 이후에도 여전히 소설은 동성 간, 이종 간에 돌봄과 사랑을 형상화하여 권력과 힘의 논리를 이겨내는 공동체의 연대가 삶의 정동적 영역에 기반함을 보여준다.

정유정과 최진영 작가의 재난 서사에서 가족과 근대 등 규율 권력이 해체되는 일련의 사건을 통해 젠더 레짐의 규범 내에 고정된 성 정체성이 공동체적 가치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성에게 강요된 성별화된 돌봄 질서가 오히려 살아남은 자들이 희망을 느끼는 원동력을 보여주면서 힘의 강요가 아니라 나눔의 연대를 통해서 재난을 극복할 수 있음을 소설에서 드러내고 있다. 더 나아가 공동체에 속하지 못한 이방인의 정체성, 그리고 인간보다 더 인간적인 동물의 서사를 담아내면서, 생명을 지닌 모든 존재는 본연의 가치와 존재 의미를 누릴 권리가 있음을 소설을 통해 강조한다.

정유정의 『28』과 최진영의 『해가 지는 곳으로』 작품을 분석하여 바이러스 감염이 확산된 이후의 세계에서 젠더의 성차로 공간성이 제한되어 권력 구조 내 타자의 위치에 놓이는 젠더 레짐을 고찰하였다. 젠더 관계를 사회적으로 규정하고 위계관계를 부여하는 원리로서의 젠더 레짐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사적/공적 영역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난 강제적인 남성성의 전유 방식을 살펴보았다. 두 편의 소설을 연구 대상으로 우리 사회에 강요된 공동체의 가치와 전통이 타자를 억압하고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이데올로기적인 규범 체계로 작동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제임스 마틴이 타자의 “정체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차이를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는 ‘정체성의 정치’에 주목”³³⁾해야 한다고 말한 것처럼

32) 케슬린 린치 외, 강순원 옮김, 『정동적 평등-누가 돌봄을 수행하는가』, 한울아카데미, 2016, 참조.

33) 제임스 마틴, 이영민 역, 「정체성」, 데이비드 앳킨슨 피터 잭슨 데이비드 시블라, 닐 위시본 편저, 이영민·진중현·박경환·이무용·박배균 역, 『현대 문화지리학』, 논형, 2011, 195면.

정치적 공간으로서의 일상을 체감해야 한다. 정체성의 차이를 인정하고 가부장적 가족 중심 사고와 가장의 권위를 당연시하는 문화, 공권력과 무력으로 대중을 억압하려는 정치·사회적인 지배구조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 아마르티아 센은 “특정한 분류 방식이 정체성의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사회적 환경에 달려 있다”³⁴⁾고 규정한다. 공포감을 형성하는 권력의 강제성과 젠더를 구별 짓는 성차가 작동하는 세계를 바로 보기 위해서는 한국사회의 사회문화적 환경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한다.

결국 작가가 바이러스의 현상에 주목하기보다 바이러스 이후의 삶을 주로 서사화한 이유는 진짜 현실의 문제가 재난 상황이라는 배경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인물 사이의 갈등과 사건 이면에는 보편적 행위 안에서 모순적인 젠더 수행성이 내재되어 있다. 재난 상황에 살아남기 위해 투쟁하고 연대하는 여성들의 정체성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재난 공간의 서사적 의미를 밀도 있게 분석해야 하는 연구의 목적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감염병 이후 힘의 지배로 재편되는 가상의 공간에서 소설 속 여성 인물들은 생물학적 성별을 중심으로 구분되어 소속감과 정체성을 박탈당했다. 실존적 외부성의 공간에서 전쟁 포로로, 사회구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한 상황에서 주인공은 생존을 위해 인간적인 모습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돌봄과 서로에 대한 따뜻한 관심으로 재난의 위기를 극복하려고 한다.

작가는 작중 인물의 목소리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속에 움트고 있는 바이러스를 없애기 위해서는 사회를 전쟁터로 바라보고 약육강식으로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는 이기적인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말한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감각을 회복하기 위해 작가 최진영은 동성애적 가치를 의미 있게 서사화하면서 인간의 억압적인 가부장적 가족 형태를 규범화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을 중요하게 전달하고 있다. 무엇보다 현재 우리가 진정한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타인을 존재 그대로 받아들이고 서로를 존중하고 더불어 살아가려는 태도를 갖추도록 해야 함을 강조하

34) 아마르티아 센, 이상환·김지현 역, 『정체성과 폭력』 개정판, 바이북스, 2020, 68-70면.

였다.

마찬가지로 정유정은 진정한 인간성의 의미를 사유하면서 ‘인간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하고 싶어 했다. “종의 다름이 인간과 동물의 취급 차이를 정당화할 수단이 되는가?”³⁵⁾ 물어보면서 죽고 죽이는 재난 상황에서 동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그 마음에 공감하는 서재형의 희생을 통해 회복의 가치를 보여주었다. 정여울은 『28』 평론에서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열쇠가 ‘공감의 네트워크’³⁶⁾에 있다고 논하였다. 결국 감염으로 목숨을 잃는 재난 속에서 공포 정치로 인간을 구속하는 것이 해답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감각을 통해 면역력을 회복할 수 있음을 소설적 상상력을 통해 그려내었다.

두 작가 모두 소설에서 남성 중심의 권력과 제도 안에 힘없는 존재로 형상화된 여성의 몸이 타자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공감을 통해 연대의 공동체로 나아가는 과정을 세밀하게 보여준다. 감염병 서사에서 가족의 죽음을 막지 못하고 하루아침에 세계가 무너지면서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의 한가운데에 다양한 인물들이 살고 있다. 마치 우리의 지금을 바라볼 수 있는 유사한 재난 상황에서 공동체를 지속할 수 있는 면역 장치는 아무 조건 없이 서로에게 마음과 관심을 쏟는 인정 공동체에, 그리고 감정적 관계로 이어지는 공동체 내부에 내재해 있다.

■ 주제어 : 재난, 젠더 레짐, 신체, 공포 정치, 폭력, 가부장제, 연대

35) 정유정, 「작가의 말」, 『28』, 앞의 책, 493면.

36) 정여울, 「재앙의 디스토피아 속에서 ‘나’를 만나다」, 정유정, 『28』, 앞의 책, 489면.

<참고문헌>

1. 자료

- 정유정, 『28』, 은행나무, 2013.
 최진영, 『해가 지는 곳으로』, 민음사, 2017.

2. 논저

- 고봉준, 「재난의 생명 정치와 연대의 (불)가능성- 2000년대 한국소설에 나타난 팬데믹 질병과 ‘종말’의 감각」, 『한국문예비평연구』 72,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21.
- 권창규, 「감염병 위기와 타자화된 존재들」, 『현대문학의 연구』 72, 현대문학연구학회, 2020.
- 김대중, 「소아마비에서 코로나 19까지: 『네메시스』 속 감염병과 존재윤리 연구」, 『현대영미소설』 27(2), 한국현대영미소설학회, 2020.
- 김미경, 「젠더질서의 변화와 ‘유연한 젠더레짐’: 여성정책에서 성평등정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소고」, 『사회사상과 문화』 18(4), 동양사회사상학회, 2015.
- 김병욱 편, 최상규 역, 『현대 소설의 이론』, 예림기획, 2007.
- 김양선, 「팬데믹 이후 사회에 대한 (여성)문학의 응답: 젠더, 노동, 네트워크」, 『비교한국학』 29(1), 국제비교한국학회, 2021.
- 김영삼, 「구원 없는 재난서사와 혐오의 정서- 김애란의 『물속골리앗』과 손홍규의 『서울』을 대상으로」, 『현대소설연구』 78, 한국현대소설학회, 2020.
- 김영삼, 「재난서사와 퇴행하는 공동체 - 박서련, 김유담, 최진영의 소설을 중심으로」, 『열린정신 인문학연구』 24(3), 원광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23.
- 김지윤, 「재난서사에 나타난 대안적 가족서사와 가족판타지-2010년대 이후 소설을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72, 우리어문학회, 2022.
- 김혜선, 「생명권력에 나타난 ‘돌봄’의 정치학-2000년대 이후 소설을 중심으로」, 『우리말글』 73, 우리말글학회, 2017.
- 데이비드 로지, 김경수·권은 역, 『소설의 기교』, 역락, 2010.
- 데이비드 앳킨슨·피터 잭슨·데이비드 시블리·닐 위시본 편저, 이영민·진종현·박경

- 환·이무용·박배균 역, 『현대 문화지리학』, 논형, 2011.
- 도린 매시, 정현주 역, 『공간·장소·젠더』,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5.
- 래인 코넬, 안상욱·현민 역, 『남성성/들』, 이매진, 2013.
- 로빈 라일, 조애리·강문순·김진옥·박종성·유정화·윤교찬·이혜원·최인환·한애경 역, 『젠더란 무엇인가』, 한울아카데미, 2015.
- 린다 맥도웰, 여성과 공간연구회 역, 『젠더, 정체성, 장소』, 한울아카데미, 2010.
- 마사 너스바움, 조계원 역, 『혐오와 수치심』, 민음사, 2015.
- 문형준, 「재난 시대의 정동: 애도의 가능성과 불가능성」, 『여성문학연구』 35, 한국여성문학학회, 2015.
- 미셸 푸코, 오생근 역, 『감시와 처벌』 개정판, 나남, 2016.
- 미케 발, 한용환·강덕화 역, 『서사란 무엇인가』, 문예출판사, 1999.
- 박길성·김우주 외, 나남출판, 『전염의 상상력』, 2017.
- 박인성, 「한·미·일 재난 서사의 마스터플롯 비교 연구」, 『대중서사연구』 26(2), 대중서사학회, 2020.
- 보리스 우스펜스키, 김경수 역, 『소설구성의 시학』, 현대소설사, 1992.
- 서세립, 「재난 서사와 사랑 담론-2010년대 소설을 중심으로」, 『사이(SAI)』 29,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20.
- 서희원, 「팬데믹 시대의 소설과 개인」, 『인문과학연구논총』 42(3), 명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21.
- 신성환, 「편혜영 소설에 나타난 장소상실과 그 의미-집, 일터, 길의 공간 구조 및 인문지리학적 인식을 중심으로」, 『어문론총』 55, 한국문학언어학회, 2011.
- 신진숙, 「팬데믹 사회의 감정구조와 미학적 대응 양상-2020년에 출판된 팬데믹 소설 앤솔로지를 중심으로」, 『문화와 융합』 44(1), 한국문화융합학회, 2022.
- 실비아 월비, 유희정 역, 『가부장제 이론』,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6.
- 아마르티아 센, 이상환·김지현 역, 『정체성과 폭력』 개정판, 바이북스, 2020.
- 양종근, 「모빌리티, 디아스포라, 난민 문학 - 강영숙의 『리나』와 최진영의 『해가지는 곳으로』를 중심으로」, 『탐라문화』 68,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2021.
- 에드워드 렐프, 김덕현·김현주·심승희 역,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2005.
- 엘리자베스 그로스, 임옥희·채세진 역, 『몸 페미니즘을 향해: 무한히 변화하는

- 몸』, 꿈꾼문고, 2019.
- 오혜진, 「출구없는 재난의 편제, 공포와 불안의 서사-정유정, 편혜영, 윤고는 소설을 중심으로」, 『우리문학회』 48, 2015.
- 원숙연, 「젠더와 국가정책의 역학: 젠더-정책레짐 정립을 위한 이론적 탐색」, 『한국행정학보』 37(2), 한국행정학회, 2003.
- 이정현, 「생명정치와 디스토피아 문학-해의 텍스트와 국내 텍스트에 나타난 생명권력의 작동 양상을 중심으로」, 『어문논집』 73, 중앙어문학회, 2018.
- 이행미, 「코로나 이후의 소설과 혐오의 임계」, 『한국근대문학연구』 22(2), 한국근대문학회, 2021.
- 이형영, 「최진영 해가 지는 곳으로 공간성 연구 - 한국형 아포칼립스로서의 특성을 중심으로」, 『문화와 융합』 44(10), 한국문화융합학회, 2022.
- 임옥희, 『팬데믹 패닉 시대, 페미-스토리노믹스』, 여이연, 2021.
- 임은희, 「2000년대 동성애 소설에 나타난 몸적 주제 양상과 타자성」, 『한중인문학연구』 45, 한중인문학회, 2014.
- 임지훈, 「팬데믹 이후 소설에서의 변화에 대한 예비적 고찰-코로나 이후 소설에서 나타나는 변화의 양상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 73, 한국언어문화학회, 2020.
- 장성규, 「파국과 종말의 상상력: 한국 재난 서사 콘텐츠를 중심으로」, 『스토리&이미지텔링』 19, 건국대학교 스토리앤이미지텔링연구소, 2020.
- 장성규, 「재난 소재 한국 소설의 미학적 전략」, 『구보학보』 27, 구보학회, 2021.
- 정과리, 이일학 외, 『감염병과 인문학』, 도서출판 강, 2014.
- 제라르 즈네뜨, 권택영 역, 『서사 담론』, 교보문고, 1992.
- 조영준, 「정유정 『28』론-극판의 파국 서사 속 ‘벌거벗겨진 자’들의 운명」, 『인문사회』 21』 8(6), 인문사회 21, 2017.
- 조형래, 「팬데믹 파라노이아」, 『한국문예창작』 19(3), 한국문예창작학회, 2020.
- 존 앤더슨, 이영민·이종희 역, 『문화·장소·흔적』, 한울아카데미, 2013.
- 주디스 버틀러, 조현준 역, 『젠더 트러블』, 문학동네, 2008.
- 주디스 버틀러, 김응산·양효실 역, 『연대하는 신체들과 거리의 정치』, 창비, 2020.
- 줄리아 크리스테바, 서민원 역, 『공포의 권력』, 동문선, 2001.
- 채태준, 「한국형 아포칼립스 비판에 질문하기-퀴어/세대 아포칼립스 『해가 지는

- 곳으로』를 중심으로, 『문화연구』 8(1), 한국문화연구학회, 2020.
- 최성실, 「한국문학의 ‘이웃’ 표상-낯선 타자와 공동체 윤리학」, 『시민인문학』 26, 경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4.
- 최정민, 「전염병의 서사와 가상공동체」, 『인문언어』 10, 국제언어인문학회, 2008.
- 캐슬린 린치 외, 강순원 옮김, 『정동적 평등-누가 돌봄을 수행하는가』, 한울아카데미, 2016.
- 한국여성연구소 엮음, 『젠더와 사회』, 동녘, 2015.
- 한광택, 「포스트코로나 멜랑콜리아」, 『비교문학』 84, 한국비교문학회, 2021.
- 한성훈, 「제노사이드와 근대 이성에 대한 성찰-관계의 사회학과 공유-환대의 공동체 윤리」, 『문화와 사회』 19, 한국문화사회학회, 2015.

[Abstract]

The Fear Politics and Gender Regimes Embedded in Disaster Narrative

- Focusing on Jung Yoo-jung's "28" and Choi Jin-young's
"To the Warm Horizon"*

Han, Ah-reum

By analyzing the politics of fear in the narrative of disasters kind of infectious diseases and the gender regime that is practiced within social constructs, we can critically explore the everyday discrimination inherent in communities and the sense of place where members are separated. Furthermore, in order to create a healthy society that recognizes the value and diversity of human beings, violent discriminatory behavior within gendered organizations must be examined from a gender perspective. In this study, focusing on Jung Yoo-jung's novel "28" and Choi Jin-young's "To the Warm Horizon", we will examine the narrative aspect of discourse on the risk of life as a threat of gender in order to have power in a disaster situation. It aims to raise a problematic awareness of the political act of creating fear by instrumentalizing the risk of infection and segregating the sex differences written on the body by dividing them into classes.

In the two novels, after the spread of the epidemic, gendered women are confined to a defined sphere and marginalized in a limited role in the public sphere. However, the author attempts to deconstruct the power structure within the community that sexually exploits women's bodies by depicting the future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2021S1A5B5A17054831)

of humanity through a system of domination and obedience. The novel points out the contradictions of the heterosexual patriarchal system by ideally portraying the restoration of relationships formed on empathy and love by rejecting masculinity in which the female body is disciplined. In the end, the novel emphasizes that the logic of power or the predominance of power in the private/public sphere is not the orientation of a positive community that sustains life. Emphasizing that the communal value, which is closer to hope than the disciplinary power that oppresses others, is the sentiment of caring to respect each other and live together as it is, the author embodies the gender regime as a social practice in the novel.

【Key words】 : Disaster, Gender Regime, Body, Fear Politics, Violence, Patriarchy, Solidarity

한아름

전북대학교 인문대학 한스타일연구센터 연구원

(54896)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인문대학 1호관 506호

전자우편: agnhb@hanmail.net

이 논문은 2024년 1월 31일에 투고되었으며, 2024년 3월 8일에 심사 완료되어 3월 19일에 게재 확정되었음.